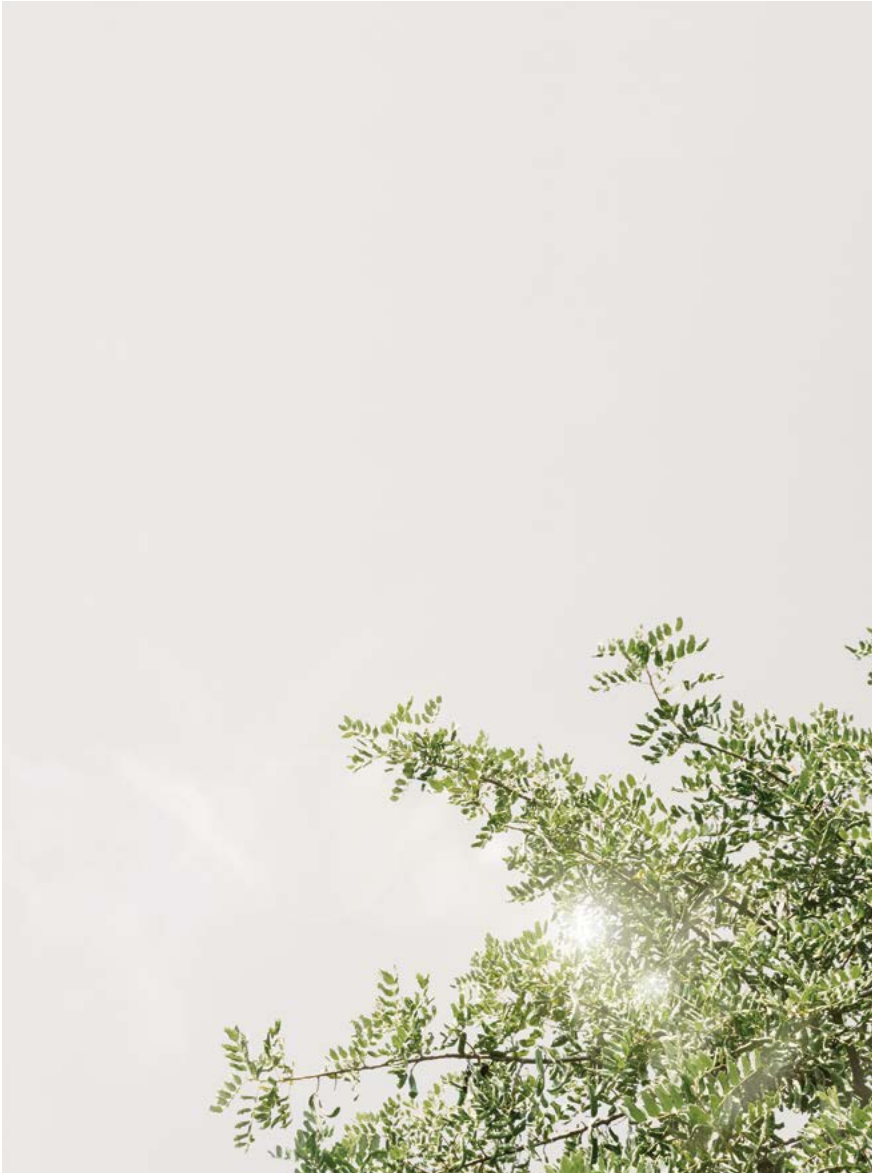


202506

수  
마  
나  
마  
영  
리  
님  
순  
심  
꿈



통일 선교 주간

# 다시, 세롭게

Re-connecting, Revival 2025

2025

6.16 - 22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21)

## 다큐 상영 및 토크 콘서트

다큐멘터리 “**사(인)사이트: Into North Korean**”

토크 콘서트 | 찬양 : 리커넥트(Re:Connect) 제작팀

패널 : 이송민(대표) · 김인아(음악) · 손수지(편집)감독

금 | 6.20 | 오후 7시 | 선교관2층 제1예배실

## 전시

(“통일”이 나에게로 오다)

**MBTI로 알아보는 맞춤형 북한선교**

북방선교부 x 송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센터 공동기획

주일 | 6.22 | 1~5부 예배 후 | 본당 옆 주차장

## 특별강연

분단을 넘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강사 : 김의혁 교수(송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토 | 6.21 | 오전 10시 | 선교관 지하1층 제1음악실

북한주민의 삶과 우리의 기도

강사 : 허남일 목사(그날교회)

토 | 6.21 | 오전 11시 | 선교관 지하1층 제1음악실

분단을 넘어, 사랑으로 길을 내다

강사 : 윤상혁 교수(평양외과대학)

토 | 6.21 | 오후 1시 | 선교관 지하1층 제1음악실

북한사역을 위한 글로벌 선교사 토크쇼

간증 : Jane(미국), Tiffany(미국), Anthony(미국)

사회 : 윤상혁 교수(평양외과대학)

토 | 6.21 | 오후 4시 | 선교관 지하1층 제1음악실

## 예배 및 기도회

삼일기도회

예배인도 : 정재현 목사(북방선교부)

수 | 6.18 | 오후 7시 30분 | 본당

6.25 나라사랑기도회

주관 : 여전도회

금 | 6.20 | 오전 10시 | 본당

주일예배 특송

미소비전 청년 | 미소센터 학생

주일 | 6.22 | 2~4부 | 본당

→  
통선학교  
신청 링크



\* 17기 통일선교학교 수강/학점인정 행사

소망교회 북방선교부

202506

소망  
말씀  
나눔  
집

© 2025 소망교회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목상집(소망말씀나눔)은 서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 CONTENTS

June |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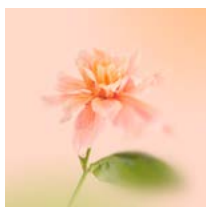


## FAITH

하늘을 여는 기도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이의 기도	4
깊어지는 영성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여   김경진	6
목상에 붙임 여전히 비추고 있는 빛   마르틴 부버	10

## WORD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준비·이해·적용·기도	14
말씀 개관 누가복음	16
6월 본문 누가복음·열왕기하	20
1주(6/2)   2주(6/9)   3주(6/16)   4주(6/23)   5주(6/30)	



## COMMUNICATION

땅끝에서 온 편지

검은 대륙을 향한 축복의 통로 | 이동관·박형란 54

소망사랑방

다시, 통일을 꿈꾸며 | 북방선교부 86

말씀과 걷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선교의 꿈을 주십니다 | 홍성민 118

공간공감

종교교회 | 홍성찬 150

이달의 기도

주님의 세계를 노래하나다 160

믿음's life

복음의 소식이 소망의 역사가 된다 | 조준식 162

가정예배

6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166

소망이 가득한 곳

나의 행복 | 강윤석 172

예배자의 길

6월, 우리의 고백 | 이영주·안진현·임한숙 174

위로 365

오늘이 너무 슬퍼서 여행하듯 살 수 없는  
이를 위한 위로 | 이상억 178

성경과 상징

나무 : 신앙의 여정 | 고원석 182

소망뉴스

6월 소식 186

# 가

하나님,  
점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망각하고  
정욕을 따라 무한한 욕심을  
발동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누라고 주신 것들을  
섬기라고 주신 기회들을  
나의 것이라고 빼앗기지 않으려  
움켜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깊어지는 영성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여!

글 김경진



세상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소식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직 좋은 소식이 많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한 차원 낮은 단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되거나 설명이 가능한 것만 확실하게 여기고, 믿음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는 어떤 사람이나 사실에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이성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의 중요한 무기와 같습니다. 믿음과 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선물입니다.



특별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도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성과 통찰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인생의 허무 앞에서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전 1:20-21)*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유한한 생명은 스스로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아시고, 구원의 길을 먼저 여신 후에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롬 10:13-15a)*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전하는 이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롬 10:15b)*

이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증언은 수천 년을 이어 내려오며 많은 신앙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40년 전, 이 땅에도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어둠과 피폐함 속에서 살아가던 조선 땅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말씀처럼 복음의 발걸음이 닿았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진정 아름다웠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이 땅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알려 주었습니다. 복음으로 이 나라가 영원한 소망을 얻었고, 서로 용서와 희생함으로 이 땅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가난과 아픔,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 우리를 통해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죽어 가는 영혼을 살리고, 나의 영혼도 살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 52:7)*

# 여전히 비추고 있는 빛

글 마르틴 부버

하늘의 태양이 어두워진 것, 신의 일식<sup>日蝕</sup>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시간'<sup>Weitstunde</sup>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정신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를 토대로 충분히 파악해 낼 수 있는 과정이 아니다. 태양이 가려져 어두워진 것은 그 태양과 우리의 눈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지 태양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지금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 신비를 해명하는 능력을 현세의 생각(지구적 사유 <sup>Erdendenken</sup>) 안에서 찾아내려고 고집하다가 가는 모든 것은 그르치게 된다. 초월의 실재, 생생하게 약동하는 실재, 우리와 마주한 존재를 그 자체로 견뎌 내려고 하지 않는 이는 인간 편에서 그 일식 현상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빛을 가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구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존재하는 것은 인간에게 상대<sup>Gegenüber</sup>이든지 대상<sup>Gegenstand</sup>이든지 둘 중 하나다. 인간의 본질은 존재하는 것과 마주하는 방식의 갈라짐<sup>분열</sup>, <sup>Zwiespalt</sup>(만남<sup>Begegnung</sup>과 관찰<sup>Betrachtung</sup>) 속에서 형성된다. 이것은 두 개의 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현존재의 두 가지 존재 양태다.

엄마를 부르는 아이, 엄마를 바라보는 아이가 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아이는 엄마를 보면서 말없이, 그저 '그녀의 눈을 들여다봄'으로써 엄마에게 말을 건넨다. 그런데 바로 그 아이가 엄마에게 있는 뭔가를 어떤 다른 물건처럼 바라본다. 두 경우는 인간이 서 있는 갈라짐<sup>Zwiefalt</sup>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인간 존재는 그 갈라짐 속에서 지속된다. 때로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이것이 나타날 때도 있다. 여기서 인간 현존재의 이중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의 현존재가 존재하

는 것을 대하는 두 가지 근본 양태는 결국 우리 현존재의 두 가지 근본 양태다. 하나는 ‘나-너’<sup>Ich-Du</sup>이고 다른 하나는 ‘나-그것’<sup>Ich-Es</sup>이다.

‘나-너’가 가장 진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종교적 실재다. 아무런 제약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여기서의 절대적인 인격체가 되어 나의 파트너가 된다. ‘나-그것’이 가장 진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철학적 인식이다. 여기에는 삶 속에서 체험되는 나와 그것의 공존이 있고, 그 공존 속의 ‘나’로부터 주체가 도출된다. 그와 동시에 ‘그것’은 주체와 완전히 분리된 객체가 된다. 이로써 이미 사유의 대상이 된 존재자에 대한, 그리고 이미 사유의 대상이 된 존재에 대한 엄격한 사유를 촉진한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다. 철학적 인식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초감각적인 세상을 제거하는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 냈다.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든, 얼마만큼이든 짙어지고 있던 원리들과 이상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모든 것과는 달리 **‘그것’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 대신 ‘당신’<sup>Du</sup>, 너이라고 부르며 말 건네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 인간과 진정으로 마주하고 있는 존재는 빛을 잃고 어두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존재 자체는 어둠의 벽 뒤쪽에서 아무런 흔들림 없이 건재하다.**

인간은 ‘신’이라는 이름까지 폐지하려고 한다. 사실 그 이름은 필연적으로 ‘소유격’을 동반한다. 만일 그 소유격의 임자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만일 ‘인간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토대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는 영원의 빛 속에 살아 있다.**

그러나 우리, “죽여 없애 버리는” 자들은 죽음에 넘겨진 존재로서 어둠 속을 헤맨다. 바로 이것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인간은 관념을 뛰어넘는 실재를 경험한다.** 인간은 여전히 철학자의 위대한 노력을 반복하면서 사랑의 대상을 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고정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은 자신의 파트너가 ‘여기에 있음’[현존함]을 증언한다.**

- 마르틴 부버 『신의 일식』 (복있는사람, 2025) 45~46, 84~85, 112쪽.